

4 · 19의 혼

내가 사는 동네는 우리 현대사에 출현한 인물들의 무덤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다. 모든 망국의 한을 품고 싸우다가 이 민족의 햇별을 보지 못한 채 타계한 이들이다.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인데 계보의 명맥이 유지되는 무덤은 가꾸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무덤은 방치된 채 짓밟히고 잠식당하고 있다. 가령 몽양 여운형의 무덤 같은 것이 그렇다.

바로 이런 동네에 하늘로 치솟은 듯한 하얀 탑들이, 청운의 염원을 상징하는 4·19 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나는 20년 내 이 곳과 친숙하고 있다.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드나든다. 외국 손님이 오거나 외국 사는 교포 와도 되도록 그곳으로 산책 방향을 잡는다. 그렇게 자주 찾건만 갈 적마다 어떤 아픔과 감격이 범벅이 된 감격에 사로잡히고 사죄를 구하는 것 같은 보안 상념에 몽롱해지곤 한다.

누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나? 그래서 저기 저렇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피기도 전에 민주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말인가? 저들이 저처럼 산화한지도 벌써 한세 대, 사반세기가 넘었다. 대학생이었던 저들이 지금 살았다면 중년이 됐으리라. 그런데 저들의 피를 먹은 나무는 과연 민주주의로 자라고 있는가?

4·19가 혁명이나 의거냐? 라는 말다툼이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값지고 참된 것을 위한 밑거름이 되느냐가 문제다. 만일 혁명이란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거나 뚜렷한 대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거란 순수히 나라와 민족을 불의와 부정에서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것이라면 나는 주저없이 4·19는 의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나무가 먹여 기운을 찾을 밑거름이 됐다고 믿는다. 스스로 권좌에 앉기 위해 폭력으로 하는 혁명이야 사육을 채우기 위해 남의 피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야 어찌됐는지 민족사의 맥락에 독소 이상 될 수 없다.

파리에 가면 나폴레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개선문이 있고, 그 아래 점화한 후 꺼뜨리지 않는다는 불향아리가 있다. 그 불은 바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조국을 위해 죽어간 이른바 무명 용사들을 기리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개선문이나 그의 장엄한 무덤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안 남겼으나, 그 무명 용사의 불티는 알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자주 생각하게 하는, 꺼지지 않는 무엇을 주고 있다. 나폴레옹이야 야망의 사나이이지!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 수없는 피를 강요하고 그것을 왕좌로 삼고 왕관을 썼지! 그가 프랑스에 가져다 준 게 무엇인가? 루브르 박물관? 그가 전 구라파를 두루 파괴한 죄과는 어찌고! 그러나 바로 나폴레옹이나 그 따위를 닮으려는 소영웅들의 강요에 몰려서 당한 것이기는 해도, 그래도 아무런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유언 따위를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어디서 어떻게 싸우다가 죽었으며 그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산화된 저들이야말로 그 민족사에서 영영 꺼지지 않는 훈이지.

4·19에 185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으며, 1,196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산화한 저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들은 이름이 있으나 이름 없는 이들! 초등학교생, 중고교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 피기도 전에 진 생명들이니 무명인들이지. 저들은 조그마한

사심도 없이 그 맑은 마음에 간직한 조국, 그 조국이 불의와 부정에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오직 붉은 주먹과 마음만으로 불의의 총탄에 가슴을 내던 것이다. 4 · 19 묘지에 묻힌 저들은 이름이나 마 돌비에 남겼지만 그때 부상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에서 외면당한 채,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4 · 19의 정신은 바로 저들의 혼이지 4 · 19를 등에 업고 목에 걸고 이름을 내고 출세를 꾀한 저들이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이름 없이 산화한 4 · 19의 혼들이 바로 3 · 1 봉기에 가담해서 이름없이 죽어간 저 민중들과 맥을 같이 한다. 3 · 1의 혼도 저 이름난 33인이 아니라 이름없이 조국을 위해 꺾기한 저 이름없는 이들의 피에 엉켜 있다.

그런데 4 · 19 묘지는 그날이 오면 그 분위기가 해가 갈수록 괴이하게 변모해 간다. 4 · 19 정신은 날로 퇴색해 가고 ‘학생의 날’ 조차 자취를 감추었는데 4 · 19의 그날이 오면 4 · 19 묘지는 그 날과 그 정신에 어울리지 않은 분위기로 ‘성황’이다. 고급 승용차가 운집하고 ‘유명한’ 이들이 앞을 다투어 모이는가 하더니 심지어는 울긋불긋한 색채로 임시 단좌를 만들고 길에 용단까지 등장된다. 그래서 이름없는 시민이나 학생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쭈그리고 잠깐 기웃거리다 사라지거나 애당초 그곳 가기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날이면 눈을 뜨자 찾아가던 내 마음도 근경에는 그날의 한적한 때를 기다리거나, 찾아 갔다가도 밀려난 사람 같은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서기가 일쑤다. 4 · 19 묘지가 정치 전시장이 돼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4 · 19 정신을 역행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독차지해서야 되겠는가!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가 조상들의 세대에 살고 있었다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데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그 시대의 지도층을 향한 분노의 힐책인데 그 힐책
이 4·19 날 묘지로 가면 번개처럼 뇌리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4·19는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이루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 그 정신은 세월과 더불어 사라져가고, 허례와 형식으로 단장
되어 간다. 4·19의 '사자'들이 이빨, 발톱이 다 빠지고 4·19 정신은
이론의 도마 위에 올라 글쟁이들의 칼질에 적당히 요리되고 있다. 그렇
게 말하는 내게도 4·19의 사건은 쉽게 아름다운 한때 얘기로 탈바꿈
한다.

작년에도 일찍 4·19 묘지로 갔다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와 인파
에 몰려 얼른 돌아와 집 뜰을 거닐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나도 모르게
딱 멈춘 채 숨을 죽인 일이 있다. 나는 산단화나무 앞에 마주 선 것이
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온통 수없이 많은 꽃봉오리가 빨갭게 돌아 나왔
는데 그것은 순간 어떤 기억을 되살렸다. 어릴 때 한의사가 환자의 이
마에 수없이 (변두)침질을 해서 그의 이마에 무수한 핏방울들이 봉오리
가 됐다가 마침내 서로 엉켜 흘러내리는 것을 본 기억이 살아났다. 그
런데 그것은 연쇄적으로 4·19에 난사 당해 쓰러져 죽은 젊은이들의
몸에서 쏟아지는 그 피로 변해서 나를 60년 4·19 현장으로 몰고간 것
이다.

(『샘터』 1984. 4)